서 장

序

범인을 찾다가

도해 **5점** · 짜임 **3**

여는 장면

문법 이야기를 꺼내면 금방 불만이 나온다. 그런데 **불만마다 가리키는 곳이 다르다.**

"5형식 때문에 영어를 망쳤어요."
"그거 일본식 문법이잖아요."
"요즘 언어학에서는 안 쓴다던데."
"어차피 시험용이죠."

네 문장이 다 어디선가 들어 본 말이다. 그리고 **네 손가락이 서로 다른 데를 가리킨다** —
이론, 일본, 학계, 시험.

넷 다 맞는 말일 수는 없다. 그런데 **넷 다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다.** 무언가 잘못되긴 했다.
문법을 십 년 배운 사람이 문장 하나를 못 읽는 일이 실제로 있고, 교사도 그것을 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이 책은 그 물음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답을 찾다가 뜻밖의 자리에 도착한다.**

미리 말해 두면 이렇다. **여덟 번 물었고, 여섯 번은 「아니다」, 한 번은 「부분적으로만」, 마지막에는 가리킬 사람이 없었다.** 범인이 계속 뒤로 물러났다.

그것이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계단 1 · 5형식이 정보 단절의 주범인가?

아니다.

다섯 형식은 문장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한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도구다.

그런데 우리가 문법에 기대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문장이 **무엇을 전달하는지**도 알고 싶다.

두 문장을 놓아 본다.

```
He gave me the ticket.
He gave the ticket to me.
```

전달하는 것이 다르다. 앞의 것은 내가 표를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뒤의 것은 그 표가 나에게 갔다는 이야기다. 앞에서는 내가, 뒤에서는 표가 앞에 선다.

그런데 다섯 형식으로는 이 차이가 안 보인다. 4형식과 3형식이라고 번호가 갈리지만, 그 번호는 **무엇이 앞에 섰는지**를 말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다섯 형식의 결함인가. **아니다.**

> **자로 무게를 못 잰다고 자를 버리지 않는다.**
> 다섯 형식은 애초에 무게를 재는 도구가 아니다.

그러면 저울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저울은 어디 갔나.

계단 2 · 그렇다면 5형식은 낡은 이론인가?

아니다. 용도가 바뀌었다.

다섯 형식을 만든 사람은 영국의 문법학자 어니언스(C. T. Onions)다. 1903년, 옥스퍼드에서다. 그는 나중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편집자가 된다.

그 책이 다섯 형식을 여는 문장은 이렇다.

> **분석을 위하여** 문장은 서술어의 형식에 따라 분류하며, **서술어는 다섯 가지 주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 (원문 which **may assume** five principal forms)
> (§ 1, 원서 6쪽)

그리고 이 문장은 책의 첫머리가 아니라 **6쪽**이다 — 앞의 세 쪽은 **분석의 한계와 생략**이 차지한다.

01장 ②-3
01장 ②-5

「**분석을 위하여**」라고 목적을 적어 두었다. 분석은 나누어 보는 **작업**이고, 작업의 결과는 하나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 I gave him the money 같은 문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 의미상 이 문장은 I gave the money to him과 같으며, **부가어를 포함한 것으로 분석하는 편이 가장 간단하다.**
> (§ 4 관찰 1, 원서 8쪽)

4형식으로 보지 않는 쪽이 「가장 간단하다」고까지 적었다. 그리고 태를 바꾸면 형식 번호가 바뀐다고도 적었다 — 4형식을 수동으로 만들면 3형식이 된다.

형식은 문장이 붙박이로 가진 성질이 아니라 지금 그 문장이 취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오늘의 참고서 첫 쪽은 이렇게 적는다.

> **영어의 모든 문장을 다섯 가지 기본구조로 분류** 재구성
> **낡은 것은 다섯이라는 수가 아니다. 「모든」이라는 한 글자다.**
> **분석 도구가 판정 기준이 되었다.**

그러면 누가 「모든」을 붙였나.

계단 3 · 어니언스가 틀렸는가?

아니다.

그는 자기 책의 한계를 **서론 첫 쪽**(원서 3쪽)에 적었다.

> 영어와 다른 언어에는 **문법적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문장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 문장에는 분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분석이 없다면 분석할 수 없는 문장들의 특성조차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 (서론, 원서 3쪽)

다섯 형식이 나오기 세 쪽 전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생략에 두 쪽을 먼저 썼다** — Thank you, Well done!, Oxford, third single, What if he dies? 같은, 형식을 매길 수 없는 문장들에.

원전의 순서는 「안 되는 것」이 먼저고 「되는 것」이 나중이다.

그리고 그는 판을 하나 더 내면서 굳이 서문을 붙여 이렇게 정정했다.

> 외국인 학습자 가운데 일부가 이 문법서의 제목을 오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Advanced'는 총서 안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단계만을 가리키며 여기서 채택한 방법을 설명하려는 말이 아님**을 이 기회에 밝혀 둔다.
> (제3판 부기, 1910년 11월)

고급 이론서가 아니라 교육용 총서의 한 권이다. 저자가 직접 그렇게 적었다.

그러면 이것을 가져온 사람인가.

계단 4 · 호소에가 5형식을 망쳤는가?

아니다. 오히려 축을 하나 더 세웠다.

다섯 형식을 동아시아에 옮긴 사람은 일본의 호소에 이쓰키(細江逸記)다. 1917년 『英文(문)法汎論』에서다.

오늘 널리 유통되는 서술은 이렇다 — 「**일본의 중학교 교사가 원전을 자기식대로 수정해서 과대 포장했다.**」

원전이 지지하지 않는다.

그의 책 첫 쪽은 이렇게 시작한다.

> 문법서의 쪽을 그저 들여다보고 학자들이 세운 많은 규칙을 외우는 일은, **언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규칙 암기에 대한 불만으로 여는 책이다. 그리고 방법을 선언한다 — 「**논리는 역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멀리 가지 못한다.**」

태도도 적혀 있다.

> 일상의 말에서 들리는 표현을 저속하다거나 틀렸다고 말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 **그것들도 여전히 영어이며, 언어 안의 다른 어떤 표현과 같은 정도로 존재할 권리가 있을지 모른다.**

1917년이다. 그리고 그가 읽은 사람들의 이름이 책에 적혀 있다 — **권두 참고문헌 42종**에 스위트·예스페르센·**어니언스**·**네스필드**가 있고, **재판 서문**이 표 바깥의 이름으로 블룸필드·막스 뮐러·세이스·휘트니를 따로 든다. 스킷은 서문에서 인용한다.

04장 ②-4

결정적인 것은 따로 있다.

그의 책 22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제8장 「말의 배열법」이고, 52쪽이다.** 그리고 **어니언스에는 그런 장이 없다.**

> **원전에 없는 장을 그가 세웠다.**
> 그 장의 첫 문장이 이유를 댄다 — 「말의 배열 순서는 말과 말의 관계를 결정하고 **문장의 의미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특별히 이 장을 마련한 까닭이다.」

계단 1에서 찾던 저울이 여기 있다. **호소에가 만들었다.**

> **동아시아 저자가 원전을 넘어 세운 유일한 축이, 동아시아 교실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그가 세운 것이 왜 안 왔나.

계단 5 · 옮긴 사람들이 잘못 옮겼는가?

부분적으로만 그렇다. 그리고 「잘못」이 아니라 「표만 왔다」이다.

호소에의 책에서 무엇이 건너오고 무엇이 안 왔는지를 세어 본다.

원전에 있던 것	건너왔는가
영어 서문 — 규칙 비판·방법 선언·기술 태도	×
참고문헌 목록	×
「이 문제에 학자들의 견해가 넷이고 나는 고르지 않는다」	×
「오늘날 간접목적어라 하는 것은 여러 성질을 포함한다」	×
새 이름 옆에 옛 이름을 나란히 적어 둔 것	×
자기 법칙의 반례에 쓴 한 장	×
동사 다섯 분류 표	○

> **표는 옮기기 쉽고 단서는 옮기기 어렵다.**
>
> **표는 한 쪽에 들어가고 단서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표만 왔다고 해서 축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이유는 없다.

어순 장은 단서가 아니라 **장 전체**였고, 52쪽이었다.

그러면 교육 현장이 줄였나.

계단 6 · 교육 현장이 줄였는가?

아니다. 오히려 늘렸다.

세어 보면 이렇다.

```
1903  어니언스      2편
1917  범론          22장
오늘  한국 중등     205유닛
```

아홉 배 넘게 늘었다. 22장이 205유닛이 되었다.

> 중3 한 학년만 보아도 22장 → 78유닛으로 3.5배다.

그리고 참고서는 교과서보다도 많이 가르친다. 어느 중1 참고서가 세운 과거진행·현재완료·수동태·분사 유닛에 대응하는 과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과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B1 대기

> **축소란 분량이 준 것이 아니다.**
> **축이 항목으로 분쇄되고, 그 과정에서 한 축을 통째로 잃은 것이다.**
> 205개는 22개보다 많다. **그런데 22개에는 「말의 배열법」이 있었고 205개에는 없다.**

그러면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라지나.

계단 7 · 그러면 누가 5형식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

여섯 계단을 밟으며 범인이 계속 뒤로 물러났다. 어니언스도 아니고, 호소에도 아니고, 옮긴 사람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다.

여기서 리듬이 깨진다. 앞의 여섯에서 손가락이 계속 다른 사람을 가리켰는데, 이번에는 가리킬 사람이 없다.

> **범인이 없다는 것은 안심할 일이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이다.**
> **잘못한 사람이 없으면 고칠 사람도 없다.**

그런데 기제는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기제가 셋 있다.

하나 — 형태

5형식에는 **형태가 있다.** 목적격 보어가 명사로도, 형용사로도, to부정사로도, 원형부정사로도 온다. **가르칠 눈금이 넷 생긴다.**

배열에는 **형태가 없다.** 두 목적어의 순서일 뿐이다. **눈금이 서지 않는다.**

오늘의 참고서 **한 종**을 펴 보면 그대로 보인다. 5형식은 학년이 올라가도 **단독 단원에 소항목 넷**을 유지하는데, 4형식은 3형식과 한 단원을 쓰고 **소항목이 줄어든다.**

표본 1 · A4 대기

> **형태가 있는 것은 눈금이 되고, 눈금이 있는 것은 항목이 되고,**
> **항목이 있는 것은 남는다.**
> **다만 형태가 있어도 그 형태가 배열의 결과일 때는 함께 사라진다.**
>
> 순환검증 V-2
>
> 도치에는 형태가 있지만 그 형태가 **배열 그 자체**여서, 배열이 밀려날 때 형태도 함께 밀렸다.

둘 — 라벨

호소에가 4형식 동사에 붙인 이름은 **여격동사(與格(여격)動詞(여격동사))**였다. 여격은 **격**이다. 격은 형태이므로 물을 수 있다 — 이 자리가 여격인가.

오늘 우리가 쓰는 이름은 **수여동사(授與(수여)動詞)**다. 수여는 **행위**다. 행위는 뜻이므로 **물으면 답이 목록과 맞지 않는다.**

목록 안에 lose가 있고 forbid가 있다. **잃게 하고 금지하는 일이 어떻게 「주는」 것인가.** 그리고 목록 밖에 explain이 있다 — 설명해 주는 것은 주는 일에 가까운데도.

> **의미로 옮긴 순간 판정이 불가능해졌고, 판정이 불가능하므로 목록만 남았다.**

셋 — 평가

「무엇을 앞세울까」는 **맥락이 있어야 정답이 갈린다.** He gave me the ticket이 맞는지 He gave the ticket to me가 맞는지는 **앞 문장을 보아야** 안다.

그런데 **맥락은 한 문장 안에 없다.** 그리고 객관식 문항은 **한 문장 안에서 정답이 하나** 여야 만들어진다.

→ 왼쪽에서 오른쪽 — 시간

맡음의 선택은 ► 맥락이 있어야 정답이 갈린다
맥락은 ► 한 문장 안에 없다
객관식·빈칸은 ► 한 문장 안에서 정답이 하나여야 한다

∴ 이 축은 출제될 수 없다

출제되지 않으면 가르쳐지지 않는다.

셋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

셋 다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셋 다 동사 쪽을 살리고 배열 쪽을 밀어낸다.

> **동사는 형태를 가졌고 배열은 갖지 못했다.**
> **그래서 100년 사이에 동사만 남았다.**

그러면 사라진 그 축은 지금 어디 있나.

계단 8 · 그 축은 정말 없어졌는가?

아니다. 「선택」이 「가부」로 굳어서 남아 있다.

205유닛 중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가 정면으로 나오는 자리가 하나 있다. **수동태 단원이다.**

>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각각을 주어로 하는 두 개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재구성

그리고 동사를 두 목록으로 나눈다 — **둘 다 되는 동사 / 직접목적어만 되는 동사.**

	묻는 것
원래의 축	**무엇을 앞세울까** — 선택
오늘	**이 동사는 되나 안 되나** — 가부

He was given my coat와 My coat was given to him이 **둘 다 가능하다고 적어 놓고, 둘의 차이는 묻지 않는다.**

> **가능성은 남고 선택은 사라졌다.**

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 — 중1의 「**turn it off만 된다**」와 중3의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가 **같은 사실**인데, 그 교재에서 148쪽 떨어져 있고 둘을 잇는 말이 없다.

09장 ②-3

> **원리 하나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참고」 박스 둘이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는 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옮겨간 것이었다 ★

계단 여덟이 범인을 못 찾은 것은 **없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축3은 지금도 가르쳐진다 — 다른 시간에, 다른 이름으로.**

문법 시간　5형식 · 열두 칸 표 · 품사　　축1 · 축2
독해 시간　연결성 · 무엇을 먼저 · 앞 문장 받기　축3

「앞 문장에서 이걸 말했으니까 여기서 이걸 받는 거야」 — 독해 시간의 이 말이 축3인데 **아무도 그것을 문법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문법은 읽기에 쓸모없다」가 성립한다.

13장

> **「문법 대 독해」라는 대립 자체가 절단의 산물이다.** 원전에는 그 대립이 없었다.
>
> **다른 일이 아니었고, 문법이 독해의 부분인 것도 아니다. 같은 것이 두 시간표가 되었을 뿐이다.**

도해 1 — 축이 둘 서 있고, 셋째 자리가 비어 있다

축1	뼈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 선다
축2	사건	언제 · 어떤 모양의 일	——— 선다
축3	전달	무엇을 먼저 말할 것인가	?

문법 시간에 둘은 단원이 있고 셋째는 없다. 이 물음표가 이 책의 제목이다.

04장
09장

도해 2 — 격이 사라진 자리

I — me — my　　대명사에만 남았다

the boy — the boy — the boy's　　명사에서는 사라졌다 (소유격 하나만 남고)

격이 하던 일을 무엇이 맡았나. 어니언스가 §72.7에서 셋을 든다 — **구문의 성격이 바뀌었고, 어순이 규칙화되었고, 전치사의 범위가 늘었다.** 03장 ②-4 **가운데 것이 축3이다.**

그리고 여기서 과제가 나온다. 배열에는 형태가 없어서 선택이 사라졌다 — 가능성만 「가부」로 남았다. **그러면 배열에 형태를 주면 된다.**

```
I gave Jiho the ticket.

    Jiho      ──────────  받음
    ticket    ──────────  건네짐
    I         ──────────  건넴
              ──────────▶

I gave the ticket to Jiho.

    Jiho      ----------  받음      ◀ 여기만 다르다
    ticket    ──────────  건네짐
    I         ──────────  건넴
              ──────────▶
```

차이는 한 줄뿐이다. 같은 사건, 같은 사람들, 같은 시간. **Jiho 줄이 실선이냐 파선이냐.**

실선은 **동사가 맡았다**는 뜻이고, 파선은 **전치사에 넘겼다**는 뜻이다.

> **무엇을 동사가 맡고 무엇을 전치사에 넘길지 — 그것이 이 두 문장의 전부다.**

이 그림이 이 책의 기본 문형이다. 수동태에서 줄이 하나 늘고, 마지막 장에서는 지문 하나를 이 그림으로 끝까지 읽는다.

그리고 이 책은 용어를 하나만 새로 만든다 — 「**맡음**」.

이 책이 진단한 병이 용어 증식이므로, **처방이 용어를 늘리면 진단이 무너진다.** 나머지는 전부 그림으로 준다.

약속하는 것 · 약속하지 않는 것

약속하는 것

원전은 대역으로 싣는다	어니언스와 호소에의 책은 저작권이 풀렸다. **인용이 아니라 원문과 번역을 나란히** 싣는다.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판정 절차를 돌려준다	목록을 없애자고 하지 않는다. **왜 목록인지**를 준다
칠판에 3분	3분을 넘기지 않도록 설계했고, 넘길 때 무엇부터 덜어낼지를 도해마다 적어 두었다. **교사 실측은 아직 하지 않았다** A2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렇게 적는다	아직 모르는 것에는 그렇다고 표시했다. 이 책이 비판하는 것이 바로 **모르는 자리를 그럴듯한 이름으로 메우는 일**이다

약속하지 않는 것

용어를 바꾸자고 하지 않는다	교과서 용어는 그대로 쓴다. 바꾸는 것은 **설명하는 방식**이다
5형식을 버리자고 하지 않는다	도구는 도구로 쓴다. 다만 **판정 기준으로는 쓰지 않는다**
시험 성적을 약속하지 않는다	**이 책이 되찾으려는 축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 항목을 여기 적는 이유가 있다. 뒤에 가서 밝히면 배신이 된다.

그러면 왜 가르치는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 —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것으로 묶인다. to·for 목록도, 수동태 두 목록도, 도치 규칙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하나를 알면 셋이 정리된다.** 외울 것을 늘리는 게 아니라 묶는 것이다.

둘 — 독해가 이것으로 된다. 문장 하나에서는 채점되지 않지만 지문에서는 매 문장 작동한다. 마지막 장이 그것을 보인다.

읽는 법

제1부	절단 이전	1903년에 무엇이 있었나	01 - 03
제2부	절단 1·2	이름이 생기고, 단서가 안 왔다	04 - 09
제3부	절단 3	주인 없는 축	10 - 13
막간		그동안 언어학은 무엇을 했나	
제4부	되찾기 I	시제와 상	14 - 16
제5부	되찾기 II	어순과 정보	17 - 19
제6부	구축	매핑과 적용	20 - 23

앞의 세 부가 진단이고, 뒤의 세 부가 처방이다. 막간은 그 사이의 다리다.

각 장은 같은 일곱 단계로 되어 있다.

① 교실의 장면 — 학생이나 교사가 실제로 하는 물음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 원문과 번역을 나란히
③ 무엇이 잘렸나 — 원전 ▸ 중간 ▸ 오늘, 세 단계 대조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 자체 서술. 여기서 원전을 다시 인용하지 않는다
⑤ 매핑 위의 자리 — 이 장이 지도의 어디에 놓이는가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 ④보다 길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규칙이다
⑦ 한 장 요약 — 지도안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있게

⑥이 ④보다 길다. 진단보다 처방이 길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스스로에게 건 규칙이다.

어느 장부터 읽어도 된다. 다만 처음 읽는다면 **06장**을 권한다. 이 책의 방법이 한 장 안에 다 들어 있다.

제 2 부 · 절단 1·2

06

與格(여격)에서 授與(수여)로

좌표 **인과 × 맡음 — 논항 실현의 변이** · 인용 **7개소** · 도해 **5점** · 짜임 **4**

① 교실의 장면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③ 무엇이 잘리고 무엇이 봉인되었나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⑤ 매핑 위의 자리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⑦ 한 장 요약

① 교실의 장면

학생이 이렇게 쓴다.

```
× Please explain me this.
× He suggested me a good plan.
× Let me introduce you my friend.
```

셋 다 틀렸다. 그리고 셋 다 **말이 된다.** 설명해 주고, 제안해 주고, 소개해 준다 —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일이다. 학생이 give me this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다.

교사의 답은 대개 둘 중 하나다.

> "그런 동사예요."
> "4형식 동사 목록을 외우세요."

둘 다 맞는 말이고, 둘 다 답이 아니다. 앞의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뒤의 것은 **왜 목록인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목록을 펴 보면 답변이 한 번 더 무너진다. 1917년 문법서가 실은 목록에는 이런 문장들이 있다.

```
This mistake will lose you many marks.
That saved us a great deal of trouble.
The doctor forbade his patient wine.
The accident caused her many a tear.
```

잃게 하고, 덜어 주고, 금지하고, 울게 한다. 어느 것도 '주는' 동작이 아니다.

그러니 곤란해진다. **수여동사라는 이름이 맞다면 이 넷이 4형식일 이유가 없고, explain이 4형식이 아닐 이유도 없다.** 이름이 목록을 설명하지 못한다.

재구성

그리고 오늘의 중등 참고서를 펴면, 4형식 옆에 **두 목적어가 자리를 바꾸는 그림이 화살표로 그려져 있다.** The company gave its employees awards 아래에 The company gave awards to its employees가 놓이고, 두 요소가 X자로 교차한다. 붙은 설명은 「전치사+간접목적어는 수식어구이므로 3형식이 된다」 한 줄뿐이다.

자리가 바뀐다는 사실은 그려져 있는데, 왜 바꾸는지도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없다.

> **이 장이 답할 질문:** 4형식의 경계는 무엇으로 그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화살표는 왜 그려졌는가.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인용 일곱 개소. **원문과 번역을 나란히 싣는다.** 뒤의 절에서는 다시 인용하지 않고 **번호로 부른다.**

②-1 다섯 중 넷째 자리

전문은 05장 ②-5에 있다. 여기서는 D 항목과 마지막 문단만 싣는다.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 28
원서 20–21쪽 — 발췌
원문 일본어

述語(술어)は既に説ける如く文(문)法上は動詞を以て本體とする。… 其用ひらるゝ動詞の種類如何によりて其動詞以外に尙何か他の語を伴はざれば文の述語として陳述を完うし得ざるものがある。今動詞全般につき此點を着眼點として之を考査すれば**英語の動詞は次の二大別五小類に分かれる**。

I. 自動詞（Intrans. V.）
A. 陳述完全自動詞（Intrans. V. of Complete Predication）
例(예)へば to sleep, to laugh, to go, to come.
B. 陳述不完全自動詞（Intr. V. of Incomplete Predication）　例へば to be, to become.
II.（他動詞）
C. 完全他動詞（Complete Transitive Verb）　例へば to catch, to strike, to have.
D. 與格動詞（Dative Verb）　例へば to give, to send, to show.
E. 作爲動詞（Factitive Verb）　例へば to make, to call, to think.

動詞に此の五種の區別あるは卽ち文の陳述の形式に五種の異なりたる種別を生ずる所以であつて、又實に文の根本形式に五種の異なりたる差別を生ずる所以である。本書に於(어)ては便宜上此の各種の動詞を中心として陳述を完成する文を順次第一公式の文、第二公式の文、第三公式の文、第四公式の文、第五公式の文と名付ける。

번역

서술어는 이미 설명했듯 문법상 동사를 본체로 한다. … 쓰이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동사 외에 어떤 다른 말을 더 동반하지 않으면 문장의 서술어로서 서술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모든 동사를 이 점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영어 동사는 다음의 두 대분류와 다섯 소분류로 나뉜다.**

Ⅰ. 자동사
A. 완전서술 자동사 — to sleep, to laugh, to go, to come
B. 불완전서술 자동사 — to be, to become
Ⅱ. (타동사)
C. 완전 타동사 — to catch, to strike, to have
D. 여격동사(與格動詞, Dative Verb) — to give, to send, to show
E. 작위동사(作爲動詞, Factitive Verb) — to make, to call, to think

동사에 이 다섯 가지 구별이 있기 때문에 문장의 서술 형식에도 서로 다른 다섯 종류가 생기며, 실로 문장의 기본 형식에도 서로 다른 다섯 갈래가 생긴다. 이 책에서는 편의상 각 종류의 동사를 중심으로 서술을 완성하는 문장을 차례로 제1공식의 문장… 제5공식의 문장이라고 한다.

[강조는 인용자]

연결문 — 05장에서 본 대로, 분류 단위가 동사로 옮겨가자 다섯 개의 이름이 필요해졌다. 그중 **D 하나만 완전·불완전 계열의 대응어가 없다** — 호소에는 E에 作爲動詞＝陳述不完全他動詞라고 병기했지만(§33, 28쪽) D에는 병기할 이름이 없었다. 이 장은 **그 D 한 칸**을 판다.

②-2 제4공식과 여격

與格動詞（Dative Verb）即ち「何々を」に相(상)當する目的(목적)を要する上に、更らに「誰々に」に相當する目的を必要とする動詞を述語(어)とする文である。… 而して此の如く**間接目的たる名詞、代名詞の格は與格（Dative Case）である**。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32
원서 25-26쪽
원문 일본어

若し又**直接目的を間接目的より前に言表はさんとすれば**間接目的は to 又は for を先(선)立つる（to ask, to inquire 等の動詞の場合(경우)には of...）副詞句となり、全文の形式は第三公式のものとなる。

번역

여격동사, 곧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데 더하여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목적어도 필요로 하는 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이다. … 이와 같이 **간접목적어인 명사와 대명사의 격은 여격(Dative Case)이다.**

또 **직접목적어를 간접목적어보다 먼저 나타내려 하면** 간접목적어는 to 또는 for가 앞서는(to ask, to inquire 등의 동사에서는 of...) 부사구가 되고, 문장 전체의 형식은 제3공식이 된다.

예문(원문 보존)

> He | gave | me | (a) dog.　(The) man | showed | (the) policeman | (his) passport.
> (The) (old) man | told | us | (an) (amusing) story.　I | forgive | you | (your) sin.

[강조는 인용자]

연결문 — 판정 기준이 **격**이다. 그리고 4형식↔3형식 교체가 규칙이 아니라 **"먼저 나타내려 하면"**, 곧 화자의 선택으로 서술되어 있다.

②-3 영국 원전은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31. 'I gave him a book.' In such a sentence as this two things are mentioned as coming under the action of the verb; in other words, there are two Objects. ... One of these Objects, 'a book,' denotes the thing which the action affects directly, and is called the Direct Object, and is in the Accusative Case like a single Object; the other, 'him,' takes us a step farther and denotes the person to or for whom the action of giving the book is performed; it is called the Indirect Object and is in the Dative Case.

Many verbs, chiefly those meaning 'give,' 'bestow,' or 'convey' (in some way), 'show,' 'tell,' take two Objects of this kind...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31–§31c
원서 39–40쪽
원문 영어

§31b. For the simple Dative with these verbs may be substituted an Adverb-phrase formed with the prepositions *to* or *for*, **but always with an inversion in the order of the Objects**; thus:— either 1. I gave the boy the money. or 2. I gave the money to the boy. either 1. He told us the whole story. or 2. He told the whole story to us.

§31c. TWO ACCUSATIVES.—In O.E. very few verbs took two Objects in the Accus., the chief were *āscian* to ask, *lǣran* (= German *lehren*) and *tǣcan* to teach. ... of the other, *lǣran* is obsolete and *tǣcan* more often took Accus. and Dative. **Ask, therefore, is the only verb in modern English which may be said to take two Objects in the Accusative.**

번역

§31. 'I gave him a book.' 같은 문장에서는 동사의 행위 아래 놓이는 두 가지가 언급된다. … 하나인 'a book'은 행위가 직접 미치는 사물을 나타내며 직접목적어라 하고, 목적어 하나일 때처럼 목적격에 놓인다. 다른 하나인 'him'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을 주는 행위가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을 위하여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이를 간접목적어라 하며 여격에 놓인다.

주로 '주다', '수여하다', '전달하다', '보이다', '말하다'를 뜻하는 많은 동사가 이런 두 목적어를 취한다…

§31b. 이 동사들과 쓰이는 단순여격은 전치사 to 또는 for로 이루어진 부사구로 바꿀 수 있지만, **반드시 목적어의 순서를 뒤집어야 한다.**

§31c. 두 목적격.—고대 영어에서 목적격 목적어 둘을 취한 동사는 매우 적었고, 주된 것은 *āscian* 'to ask', *lǣran* (= 독일어 *lehren*), *tǣcan* 'to teach'였다. … *lǣran*은 사라졌고 *tǣcan*은 목적격과 여격을 함께 취하는 일이 더 흔했다. **따라서 현대 영어에서 두 목적격 목적어를 취한다고 할 수 있는 동사는 ask뿐이다.**

[강조는 인용자]

연결문 — 어니언스는 이 부류에 **이름을 주지 않았다.** "주로 give·bestow·convey·show·tell을 뜻하는 동사"라고 의미로 지시했을 뿐이다. 이름은 다음 세대의 일이다.

②-4 목록의 실물

§45
원서 62–63쪽
원문 일본어

to afford | to allot | to allow | to assign | to award to bear | to bequeath | to bid | to bring | to buy to cause | to convey | to cost † | to deny † | to do to ensure | to fetch | to find | to forgive † | to forbid to give | to get | to grant | to guarantee to hand | to last | to leave | to lend | to lose to make | to offer | to order | to owe | to pardon † to pass | to pay | to permit | to play | to prescribe to present | to proffer | to promise | to read | to reach † to refuse | to render | to restore | to save † | to sell to send | to show | to sing | to spare † | to take to tell | to throw | to wish | to write | to vouchsafe to yield

此内 † 印を付けたものは通常その間接目的を副詞句に書替へる事(사)がない。

번역

이 가운데 † 표를 붙인 동사는 보통 간접목적어를 부사구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예문(원문 보존, 발췌)

> He allowed his wife one hundred pounds a month.
> The doctor forbade his patient wine.
> This mistake will lose you many marks.
> That saved us a great deal of trouble.
> No one can refuse the lady anything.

연결문 — 61개다. 이 목록을 '주는 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목록 자체가 답한다.

②-5 무엇이 순서를 정하는가 (영국)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103
원서 100–101쪽
원문 영어

표제: THE POSITION OF A DATIVE AND AN ACCUSATIVE GOVERNED BY THE SAME VERB.

1. The Dative, whether a noun or pronoun, precedes the Accusative when the latter is a noun:
She has bought the boy a book. The duke brought the queen a letter.

2. When both Dative and Accusative are pronouns, **their position is determined by their phonetic value, the lighter of the two usually coming first**:
Tell him this. Do not send me those. We will show it you. I will fetch it him.

Where the pronouns are of approximately equal phonetic value, there appears to be some uncertainty as to their position. Thus, 'I cannot lend them you now' and 'I cannot lend you them now' are **equally possible**.

3. When the Dative is replaced by *to* or *for*, the Accusative always comes first:
He taught Euclid to his sons. Bring the book to me.

번역

1. 여격은 명사든 대명사든, 목적격이 명사이면 그 앞에 온다. 2. 여격과 목적격이 모두 대명사이면 **음성적 무게가 위치를 결정하며, 보통 더 가벼운 것이 먼저 온다.**
대명사들의 음성적 무게가 거의 같으면 위치에 다소 불확실성이 있는 듯하다. 따라서 'I cannot lend them you now'와 'I cannot lend you them now'가 **모두 가능하다.**
3. 여격을 to 또는 for로 바꾸면 목적격이 언제나 먼저 온다.
[강조는 인용자]

연결문 — 「형태의 의미」 편, 곧 격을 다루는 자리에 있는 절인데 내용은 통째로 **어순**이다.

②-6 무엇이 순서를 정하는가 (일본)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75
원서 99–100쪽
원문 일본어

既に §32 に於て説けるが如く間接目的は直接目的の前に立つものである。 但し**両目的共に代名詞なる時(시)は口調によりて配置せられ軽きものが先に立つ**。故に直接目的が "it" なる時は之れを間接目的より先に出すを**通則(통칙)**とする。例へば
Give it him with the left.—Thackeray.
But I will give it him, if I've six months for it.—Dickens.

又直接目的に重きを置きて言ふ時は之れを先に立て、間接目的たるものは、to 又は for（其場合の意義によりて）の目的として後に送る（§32）。例へば
I sent a long letter to him.
You're to save a dance for me.—G. Eliot.

尙 §45 の表にも示した通り或場合には此の直接目的を先に出だす事の出來ぬものもあり、又 §32 にも一言した通り間接目的後送の際前置詞が of なる事や on なる事があるが、**此等は今日の間接目的なるものが種々の異なりたる性質のものを含んで居る結果である。**
He asked me my opinion.　＝He asked my opinion of me.

번역

이미 §32에서 설명했듯 간접목적어는 직접목적어 앞에 놓인다. 다만 **두 목적어가 모두 대명사일 때에는 어조에 따라 배열하며 가벼운 것을 먼저 놓는다.** 그러므로 직접목적어가 'it'일 때에는 이를 간접목적어보다 앞에 놓는 것을 **통칙(通則)**으로 한다.

또 **직접목적어를 중시하여 말할 때에는** 그것을 먼저 놓고, 간접목적어는 to 또는 for(그 경우의 의미에 따라)의 목적어로 삼아 뒤로 보낸다.

§45의 표에도 보였듯 어떤 경우에는 직접목적어를 먼저 내놓을 수 없는 것도 있고, 간접목적어를 뒤로 보낼 때 전치사가 of 또는 on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오늘날 간접목적어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포함한 결과이다.**

[강조는 인용자]

연결문 —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 **호소에는 '간접목적어'가 균질한 부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04장에서 이 한 문장을 미리 보였고(저자가 스스로 표시한 허점 넷 중 하나), 여기서 문맥과 함께 본다. 균질하지 않은 것을 한 이름으로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 장의 ③이다.

②-7 격이 사라진 뒤

The loss of Case-inflexion had three important and far-reaching effects on the structure of the language. (i) It changed the character of certain constructions. For instance, the range of the Nominative was greatly increased by the desire **to bring into prominence the logical subject** by placing it at the head of the Sentence... (ii) **It regulated and systematized word-order.** It has just been shown how the loss of an accusative inflexion made the order Subject + Verb + Object an absolute necessity. (iii) **It greatly increased the scope and importance of the preposition**, just as the loss of verb-inflexions enlarged the scope of the auxiliary verb.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72.7
원서 90쪽
원문 영어

번역

격 굴절의 상실은 언어 구조에 중요하고 광범위한 세 영향을 미쳤다. (i) 특정 구문의 성격을 바꾸었다. 예컨대 **논리적 주어를 두드러지게 하려는** 경향으로 주어를 문두에 놓게 되면서 주격의 범위가 크게 늘었다. … (ii) **어순을 규칙화하고 체계화했다.** 목적격 굴절의 상실이 주어+동사+목적어의 순서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 과정을 방금 보았다. (iii) **전치사의 범위와 중요성을 크게 늘렸다.** 동사 굴절의 상실이 조동사의 범위를 넓힌 것과 같다.

[강조는 인용자]

연결문 — ②-3의 "반드시 순서를 뒤집어야 한다"가 왜 **반드시**인지가 여기 있다. ④에서 회수한다.

③ 무엇이 잘리고 무엇이 봉인되었나

1 이름의 세 단계

	이름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	판정 절차
어니언스 1903/1911	**없음**	"여격을 취하는 구문"	**격이 여격인가**
호소에 1917	**여격동사(與格動詞)**	**격**의 이름	**간접목적어가 여격인가** (②-2)
한국 학교문법	**수여동사(授與動詞)**	**주는 행위**	**없음** — 목록 암기

세 칸 모두 채워져 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한 칸만 비어 있다.**

이 표가 이 장의 전부다. 이름이 격에서 행위로 옮겨 가는 사이에 **판정 절차가 함께 사라졌다.**

2 왜 절차가 사라졌는가 — 옮긴 자리에 절차가 없었다

여격은 **격**이다. 격은 형태이므로 물을 수 있다 — 이 자리가 여격인가. 라틴어와 독일어를 배운 사람에게 이것은 실제로 판정 가능한 질문이었다.

수여는 **행위**다. 행위는 뜻이므로 물을 수 없다 — 아니, 물을 수는 있는데 **답이 목록과 맞지 않는다.** lose는 잃게 하는 일이고 forbid는 막는 일인데 둘 다 목록 안에 있다. explain은 건네주는 일에 가까운데 목록 밖에 있다.

> **의미로 옮긴 순간 판정이 불가능해졌고, 판정이 불가능하므로 목록만 남았다.**

이것이 07장 이 「층위 이동」이라 부르는 기제의 첫 사례다. 구조의 이름이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면, 구조를 물을 수 없게 된다.

3 그리고 축소 — 다섯 중 넷만 자리를 얻었다

호소에의 다섯 분류(②-1)가 오늘의 2×2 격자로 접히는 과정은 임의의 뭉갬이 아니다. **정확히 넷을 흡수하고 하나를 남겼다.**

범론	이름	완전·불완전 계열 대응어	2×2 격자에서
A	완전서술 자동사	그 자체	**완전자동사**
B	불완전서술 자동사	그 자체	**불완전자동사**
C	완전 타동사	그 자체	**완전타동사**
E	작위동사	**불완전서술 타동사** (§33, 28쪽)	**불완전타동사**
D	**여격동사**	**없다**	**?**

A·B·C는 이미 완전·불완전 계열의 이름을 쓰고 있었다. E에는 호소에 자신이 §33에서 作爲動詞＝陳述不完全他動詞라고 대응어를 병기해 두었다. **오직 D에만 병기할 이름이 없다.**

이유는 구조적이다. 완전·불완전은 **보어를 요구하는가**를 묻는 축이다. 여격동사는 보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 목적어를 하나 더 받을 뿐이다. **그 축에 애초에 걸리지 않는다.**

> **수여동사의 미아화는 사고가 아니라 예정된 결과였다.**
>
> 2×2 격자는 넷을 정확히 흡수하고, 걸리지 않는 하나를 밖에 남겼다.
>
> 남은 칸은 정의할 자리가 없어 **「4형식을 만드는 동사」라는 순환**으로 남는다.

05장 ④-3·4

4 오늘의 교재가 이 빈칸을 그대로 보여 준다

재구성

오늘의 중등 참고서 중1 과정, 다섯 형식을 다루는 쪽의 측주에는 동사 분류가 이렇게 적혀 있다.

자동사 / 타동사
완전자동사 (1형식 동사)
불완전자동사 (2형식 동사)

1형식과 2형식에는 동사 이름이 붙어 있고, 4형식에는 없다.

100년 전 격자가 남긴 빈칸이 오늘 측주 한 칸에 그대로 있다. 학생은 1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라는 말은 배우고, 4형식 동사에 해당하는 말은 「수여동사」라는 다른 계열의 이름으로 따로 배운다. **두 이름이 같은 표에 들어가지 않는다.**

5 또 하나 봉인된 것 — 두 목적격과 여격+목적격의 구별

어니언스는 §31c(②-3)에서 **두 목적격**을 취하는 동사와 **여격+목적격**을 취하는 동사를 구별했다. 고대 영어에서 목적격 둘을 취한 동사는 셋뿐이었고, 지금은 ask 하나다. 호소에도 §46에서 이 구별을 보존했다.

학교문법은 둘을 한 칸에 넣었다.

11장

구별이 사라지자 ask him a question과 give him a book이 같은 것이 되었다. 그리고 두 문장이 수동태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졌다.

6 ③의 정리

무엇이	어디서	무엇이 남았나
판정 근거	격 → 행위로 옮기면서	목록 암기
다섯째 자리	2×2 격자가 넷을 흡수하면서	순환 정의
두 부류의 구별	ask와 give를 한 칸에 넣으면서	수동태의 설명 불가

세 가지가 함께 사라졌고, 세 가지 모두 오늘의 교실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1 왜 규칙이 아니라 목록인가 — 여격 구문의 잔존이기 때문이다

②-3의 §31c가 답을 준다.

고대 영어에서 목적격 목적어 **둘**을 취한 동사는 셋뿐이었고, 그중 둘은 사라지거나 여격 쪽으로 옮겨 갔다. 오늘 두 목적격을 취한다고 할 수 있는 동사는 ask 하나다.

그렇다면 나머지 전부 — give send show tell class="orig-en">lend — 는 두 목적격 구문이 아니다. **여격+목적격이다.** 여격 어미는 사라졌지만 **구문은 남았다.**

> **4형식은 하나의 부류가 아니라 여격 구문의 잔존이다.**

이 한 문장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한다.

- **잔존이므로 규칙이 아니라 목록이다.** 살아남은 것들의 명단이지 조건의 서술이 아니다.
- **잔존이므로 그 안에 층이 있다.** ②-4의 † 표시가 그것이다 — 같은 목록 안에서도 cost deny forgive는 to-for로 바꾸지 못한다. 균질한 부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호소에 자신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 ②-6의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말한다 — **간접목적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포함한다.**

> **저자는 부류가 균질하지 않음을 적어 두었고, 수용은 그 단서를 옮기지 않았다.**
>
> 04장에서 본 네 개의 단서 중 하나가 여기서 회수된다.

2 격이 사라지자 어순이 그 일을 떠맡았다

②-7이 격 굴절 상실의 세 효과를 명시한다. (i) 논리적 주어를 문두에 놓아 두드러지게 하려는 경향, (ii) **어순의 규칙화·체계화**, (iii) **전치사의 범위 확대**.

여격동사 교체는 이 셋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지점이다.

여격 어미가 있던 시절　　어미가 "이 자리"를 표시했다

▾ 어미 소실

두 가지가 나눠 맡았다　　자리　　— Jiho 를 앞에　　(ii)
　　전치사　— to 를 붙여　　(iii)

그래서 ②-3의 § 31b가 「**반드시 목적어의 순서를 뒤집어야 한다**」고 쓴 것이다.

임의의 규칙이 아니다. 어순이 격의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다. 순서를 뒤집지 않으면 어느 쪽이 여격 자리였는지 표시할 방법이 없다.

> **오늘 교재의 X자 화살표는 이 사실의 그림이다.**
>
> 화살표는 남았고, 그것이 왜 반드시인지는 남지 않았다.

3 그러면 둘 중 어느 순서를 쓰는가 — 무게와 초점이 정한다

세 인용이 같은 말을 한다.

	무엇이 순서를 정하는가
②-5 (§ 103.2)	**음성적 무게.** 둘 다 대명사이면 가벼운 쪽이 먼저
②-6 (§ 75)	**무게, 그리고 초점.** 가벼운 것을 먼저 놓되, **직접목적어를 중시하여 말할 때에는 그것을 먼저**
②-2 (§ 32)	**화자의 의도.** 직접목적어를 **먼저 나타내려 하면** to·for 부사구가 된다

세 곳 모두 **화자의 선택**으로 서술되어 있다. 「먼저 나타내려 하면」, 「중시하여 말할 때에는」 — 조건절의 주어가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②-5가 한 걸음 더 나간다. 무게가 비슷하면 **둘 다 가능하다.** I cannot lend them you now와 I cannot lend you them now가 **equally possible**이다.

교실은 이것을 「**4형식 → 3형식 전환 공식**」으로 가르친다.

> **선택이 공식이 되면 왜 그 순서를 골랐는지 물을 수 없다.**
>
> 공식에는 화자가 없다. 입력과 출력만 있다.

그리고 「둘 다 가능」은 오늘 교재에도 적혀 있다

오늘의 중등 참고서는 구동사의 목적어 위치를 이렇게 정리한다. 재구성

	목적어가 명사일 때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위치	두 자리 **둘 다 가능**	**한 자리만** 가능

어니언스와 같은 말이다. 「둘 다 가능」이라는 관찰이 100년을 건너 그대로 남아 있다.

차이는 하나뿐이다. **어니언스는 왜인지 적었고, 교재는 적지 않는다.**

대명사는 가볍다. 가벼운 것은 뒤로 갈 이유가 없다 — 그것이 전부이고, 그 한 문장이 없으면 「대명사일 때는 한 자리만」은 외울 조항이 된다.

4 그러면 목록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 소유와 권한의 변화다

②-4의 목록 61개를 펼쳐 놓고 보면 모양이 보인다.

```
afford  allot  allow  assign  award  bequeath  convey  deny
ensure  forbid  forgive  grant  guarantee  lend  lose  offer
owe  pay  permit  refuse  restore  save  spare  tell  show …
```

얻거나, 잃거나, 막히는 일이다.

- 얻는다 — give, grant, award, hand, pay
- 잃는다 — lose, cost, deny, refuse, forbid
- 아직 안 갔다 — owe, promise, offer
- 면한다 — save, spare, forgive

넷 다 **소유나 권한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다. 그리고 목록 밖에 있는 explain suggest describe announce introduce는 전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가리킨다.

이것은 목록의 모양을 기술하는 말이지 판정 기준이 아니다. 판정은 ⑥-1의 두 형태 시험으로 한다.

tell show read도 전달 동사인데 목록 안에 있다. 이들은 **메시지를 건네는** 동사이지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다. 건네면 상대가 갖는다.

이것이 「수여」가 틀린 이름인 진짜 이유다.

경계가 의미가 아니어서가 아니다. **그 의미가 '주기'가 아니어서**다.

소유의 변화는 얻는 것만이 아니라 잃고 막히는 것을 포함한다.

cost lose deny forbid owe가 목록 안에 있는 이유이고,

「수여」라는 이름으로는 이 절반이 설명되지 않는다.

폐기한 설명 둘 — 여기 적어 둔다

어원 설명. 이 장의 초안은 「explain·suggest는 여격이 살아 있던 시기를 통과하지 않았다」로 닫았다. **반증되었다.** 같은 시기에 들어온 offer promise award가 이중목적어를 자유롭게 취하고, 오늘도 새 동사가 들어온다 — text me, DM him.

운율 설명. 표준 문헌은 초두강세·단음절 경향을 든다. 경향일 수는 있어도 경계선일 수 없다 — **②-4 목록 자체가 반례를 17개 담고 있다** (afford·allow·assign·award·deny·forgive·guarantee·refuse…).

틀린 설명을 지우고 자리를 비워 두는 편이, 그럴듯한 설명으로 채우는 것보다 낫다.

이 책이 진단하는 병이 바로 그럴듯한 이름으로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다.

5 세 층으로 닫는다

질문	답	근거
왜 규칙이 아니라 목록인가	**여격 구문의 잔존이기 때문**	②-3 (§ 31c) · ②-7
왜 반드시 순서가 뒤집히는가	**어순이 격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	②-7 · ②-3 (§ 31b)
목록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소유·권한의 변화**	②-4의 실물
두 순서 중 무엇을 쓰는가	**무게와 초점 — 화자가 고른다**	②-5 ②-6 ②-2
그래도 남는 것	어휘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 잔여	—

목록을 외워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왜 목록인지, 목록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고 외운다.**

> 잠정 **「소유의 변화」는 사건 구조의 문제다.**
> **이 이름이 최종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 사건 구조를 정면으로 다루는 문헌 (Croft, *Verbs*)을 끝까지 읽은 뒤에 정한다. 부록 D-1

⑤ 매핑 위의 자리

좌표: 인과 차원 × 맡음 — 논항 실현의 변이

교차 좌표다. 이유를 그대로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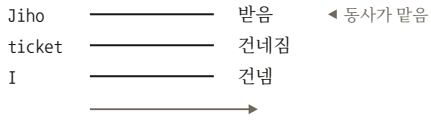
여격↔to·for 교체는 **논항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의 문제이므로 축1의 사건이다. 그런데 ②-3이 명시하듯 **반드시 순서 반전을 동반**하므로 배열 없이는 기술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순서 중 무엇을 고르는가는 무게(②-5)와 초점(②-6)이 정하므로, **선택이 결과를 지배한다.**

축1과 선택을 나란한 두 축으로 그릴 수 없다. 이 장을 쓰는 동안 계속 한 그림 위에 겹쳐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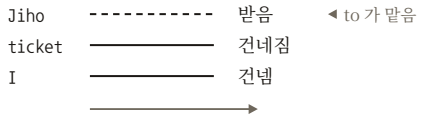
> **가설을 여기서 시험했다.** 정보 층위는 동사와 어순의 산물이라는 가설은 이 장에서 **나눠 쓸 수 없음**으로 확인되었다. 매핑 v1이 축3을 별도 축이 아니라 **세 차원 위에 얹히는 선택**으로 둔 것이 옳았다.
> 20장 ④-2

도해 1 — 같은 사건, 맡음만 다르다

① I gave Jiho the ticket.



② I gave the ticket to Jiho.



차이는 한 줄뿐이다. 같은 사건, 같은 참여자, 같은 시간. **Jiho 줄이 실선이냐 파선이냐.**

> 무엇을 동사가 맡고 무엇을 전치사에 넘길지 — **그것이 이 두 문장의 전부다.**

이 그림이 이 책의 기본 문형이다. 11장 에서 줄이 하나 늘고, 22장 에서 다시 쓰인다.

> **다만 이 장은 축3의 「대표」가 아니라 「가장 작은」 사례다.**
> 실제 지문을 훑어 보면 여격교체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축3은 주로 **주어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에서 작동한다. 여격교체는 경계가 뚜렷해
> 기제가 선명하게 보이는 자리이므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판 것** 뿐이다.
> **축3의 주무대는 태(態)이고, 그것은 11장 이다.**

판서 3분 · 실측 대기 A2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목록 암기를 없애지 않는다. 암기의 이유를 준다.

0 먼저 정직하게 —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이 절을 읽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재구성

「어느 쪽을 앞세울 것인가」를 묻는 문항은 없다. 오늘의 중등 참고서 실전 모의고사를 전수로 훑으면, **4·5형식과 관련해** 출제되는 것은 넷뿐이다.

출제되는 것	무엇이 정답을 하나로 만드나
전치사가 to냐 for냐 of냐	**동사가 정한다**
이 문장은 몇 형식인가	**문장이 정한다**
목적격 보어가 원형이냐 to부정사냐	**동사가 정한다**
「수동태로 바꿔 쓰시오」	**문제가 정한다**

수동태 서술형 문항을 보면 특히 선명하다. Jim sent his parents a postcard. 를 수동태로 바꾸라면서,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올린 형태가 이미 문제에 인쇄되어 있다.** 학생이 채우는 것은 전치사다.

> **어느 것을 주어로 올릴지는 문제가 정해 주고, 학생은 전치사만 고른다.**

이유는 구조적이고, 교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 시간

맡음의 선택은 ► 맥락이 있어야 정답이 갈린다
맥락은 ► 한 문장 안에 없다
객관식·빈칸은 ► 한 문장 안에서 정답이 하나여야 한다

∴ 이 축은 출제될 수 없다

그러면 왜 가르치는가. 두 가지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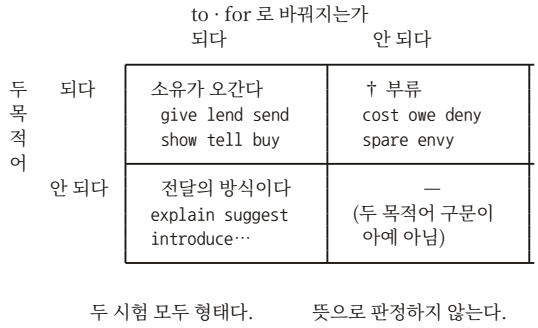
22장

1.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것으로 설명된다.** to/for 목록도, † 부류도, 수동태 두 목록도 전부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하나를 알면 셋이 정리된다** — 외울 것을 늘리는 게 아니라 묶는 것이다. 2. **독해가 이것으로 된다.** 문장 하나에서는 채점되지 않지만 지문에서는 매 문장 작동한다.

이 두 가지를 학생에게 그대로 말해도 된다.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 대신 시험에 나오는 걸 외우기 쉽게 해 준다"**는 말은 교실에서 잘 통한다.

1 도해 3 — 판정 절차: 두 시험, 네 칸

뜻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두 번 바꿔 본다.



판서할 때 동사를 교사가 채우지 않는다. 하나씩 주고 학생이 두 시험으로 판정하게 한다. **판정 절차가 곧 판서가 된다.**

> 잠정 **첫째 시험은 학생이 혼자 답할 수 없다.** 「두 목적어를 받는가」를 판정하려면 이미 그 동사가 그 구문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 **목록을 아는 학생만 통과하는 시험**이다.
>
> **이 표가 대신하는 것은 「목록을 외운다」가 아니라 「목록을 외우고도 왜인지 모른다」다.**
>
> 둘째 시험(to·for 전환)은 혼자 답할 수 있고, 그것이 † 부류를 갈라 준다.
>
> **절차를 완전히 복원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A5

네 칸이 도해 1과 이어진다

소유가 오간다	▸ ① 도 ② 도 가능	(맡음을 고를 수 있다)
† 부류	▸ ① 만	(동사가 맡을 수밖에 없다)
전달의 방식	▸ ② 만	(전치사가 맡을 수밖에 없다)

이 세 줄이 2×2를 분류표에서 판정표로 바꾼다. 네 칸은 동사를 서랍에 넣는 표가 아니라 「**맡음을 고를 수 있는가**」를 묻는 표다.

> **두 말을 갈라 둔다.** 「소유·권한의 변화」는 이 목록이 **왜 이런 모양인지**를 말해 주는 기술(記述)이고, **새 동사를 만났을 때의 판정은 두 형태 시험으로** 한다. 뜻은 이해를 돕고, 형태가 판정한다. ④-4

판서 3분 · 실측 대기 A2

2 단서 둘 — 반드시 붙인다

† 부류. cost deny forgive spare는 to·for 전환이 안 된다(②-4의 † 표시). 학생에게 **"규칙에 예외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

> "이건 예외가 아니라, 이 목록 자체가 옛 구문의 잔존이라서 안쪽에 층이 있는 거다."

ask. 두 목적격을 취하는 유일한 동사다(②-3, §31c). 그래서 전치사가 of로 갈리고, 수동태에서 다르게 행동한다. 11장 으로 넘긴다.

3 수동태 두 목록 — 여기서 미리 짚어 둔다

오늘의 참고서는 4형식 동사를 수동태에서 다시 두 목록으로 가른다. 재구성

	동사
간접·직접목적어 **둘 다** 주어가 될 수 있다	ask, award, give, lend, send, show, teach, tell, offer
직접목적어만 주어가 될 수 있다	buy, cook, get, make, read, pass, prepare, sell, sing, write

교재는 이 경계를 설명하지 않고, 같은 쪽의 to/for/of 분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잠정 **이 두 목록이 맡음으로 갈리는지는 아직 판정하지 않았다.**
「to를 쓰면 실선, for를 쓰면 파선」으로 갈릴 것이라 예상했으나 어긋났다 —
to류인 read sell write pass가 아래 목록에, of류인 ask가 위 목록에 있다.
매핑이 무너지는 조건을 부록 D-4 **가 일곱으로 적어 두었다.**
그리고 범론 §153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관습이 굳었느냐**로 말한다(11장 ②-4).
그 편이 맞다면 **목록을 예측하는 것은 매핑의 일이 아니게 된다.**
결정 전까지 이 표를 교실 처방으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교재의 목록 자체가 의심스럽다. He was sold a car·He was passed the ball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원어민 확인 대기** A5

지금 교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 두 목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교재가 그 경계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 설명이 서면 개정판에 넣는다.

4 학생 질문 셋과 답변 문장

Q. explain me this는 왜 안 되나요?

두 목적어를 받는 동사는 **소유나 권한이 오가거나 막히는 일**을 가리킨다 — 주고(give), 빌려주고(lend), 빚지고(owe), 잃게 하고(cost), 막는다(deny). explain은 그런 동사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가리킨다.
다만 이건 목록이 왜 이런 모양인지를 설명한 것이고, 판정은 형태로 한다 — explain me this는 두 목적어 시험에서 걸린다. ⑥-1
왜 목록이냐면, 이 구문이 옛 영어 여격의 잔존이기 때문이다. **규칙을 못 찾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잔존이라서 목록이고 목록이라서 외운다.**

Q. lose나 owe는 주는 게 아닌데 왜 4형식이에요?

> 그래서 '수여동사'라는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 기준은 '주기'가 아니라 **소유의 변화**이고, 잃는 것과 아직 안 준 것도 변화다. This mistake will lose you many marks는 100년 전 문법서에도 4형식 예문으로 실려 있다.

Q. I gave him it은 왜 어색해요?

> 둘 다 대명사일 때는 **가벼운 쪽이 먼저** 온다. Give it him이 원래 형태이고, **1917년 문법서(범론 § 75)가 새커리에서 든 예문**이다. 1903년 문법서는 같은 원리를 다른 예문으로 적는다 — I will fetch it him. 18장 ②-1
> 그리고 이건 구동사에서 배운 것과 같은 이야기다. turn it off는 되고 turn off it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대명사는 가벼워서 뒤로 갈 이유가 없다.** 두 단원에서 따로 배웠지만 같은 규칙이다.

5 도해 2 — 격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맡았나

[옛 영어] 간접목적어에 여격 어미가 붙어 있었다
어미가 "이 자리"를 표시

▼ 어미 소실

[오늘] 두 가지가 나눠 맡았다

- 자리 — Jiho 를 앞에 ► gave Jiho the ticket
- 전치사 — to 를 붙여 ► gave the ticket to Jiho

※ 어느 쪽이든 두 목적어의 앞뒤가 반드시 바뀐다

옛 영어 문장을 지어내지 않는다. ②-3의 세 동사만 쓰고, 나머지는 "여격 어미가 있었다"는 사실만 말한다.

판서 3분 · 실측 대기 A2

6 한 시간 배분안

	내용	분
1	학생이 쓴 틀린 문장 셋 — 왜 말이 되는데 안 되는가	5
2	목록을 펴 본다. lose·forbid가 왜 여기 있나	5
3	**도해 2** — 격이 사라지고 두 가지가 나눠 맡았다	8
4	**도해 1** — 같은 사건, 한 줄만 다르다	8
5	**도해 3** — 두 시험으로 학생이 직접 판정	12
6	단서 둘(† 부류·ask) · 구동사와 같은 규칙임을 잇기	7
		45

새 단원을 만들지 않는다. 4형식 단원 한 시간 안에서 끝난다.

⑦ 한 장 요약

> 지도안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있게. 본문을 참조하지 않고 홀로 선다.

4형식 —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

말할 것

· 두 목적어 구문은 '여격'이 살아 있던 시절의 잔존이다
· 그래서 규칙이 아니라 목록이다 — 목록인 데는 이유가 있다
· 목록의 모양은 '주기'가 아니라 소유·권한의 변화다

얻는다	give grant award	잃는다	lose cost deny forbid
아직	owe promise offer	면한다	save spare forgive

· to·for로 바꾸면 반드시 순서가 뒤집힌다 — 어순이 격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 둘 다 대명사면 가벼운 쪽이 먼저 — Give it him (범론 § 75)
· 어느 순서를 쓸지는 무엇을 앞세우고 싶은가가 정한다

말하지 말 것

· "주는 뜻이면 4형식" — lose · save · forbid 가 반례다
· "4형식 ► 3형식 전환 공식" — 원전은 화자의 선택으로 썼다
· "규칙에 예외가 있다" — † 부류는 예외가 아니라 잔존 안의 층이다

두 시험 (뜻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to·for 로 바꿔지는가		
	되다	안 되다	
목적어 둘 되다	소유가 오간다 give lend send	† 부류 cost deny	①만
목적어 둘 안 되다	전달의 방식 explain suggest	–	②만

잊지 말 것

·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시험에 나오는 목록들이 이것으로 묶인다는 것이 값이다.
· turn it off 와 같은 규칙이다 — 대명사는 가볍다

넘길 것

· ask 만 두 목적격을 취한다 ► 수동태 (11장)
· 수동태 두 목록의 경계 ► 아직 판정하지 않았다